

1장



나는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와 함께 있었다

제 1 장

“나는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와 함께 있었다”

- 1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 2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 3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귀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귀어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 4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 5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 6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 7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귀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

이요

- 8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 9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 10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느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서 론

본서는 고령의 사도 요한이 그 말년에, 요한복음을 집필하고서 얼마 안 되는 제 1세기 말경에, 에베소에서 계시록처럼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에 써 보낸 회문이다.

본서는 교리와 실행의 양면을 말한, 유익한 논문이다. 당시, 주 예수는 단순한 환상에 지나지 않으며, 또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사람인 예수의 침례 시에 결합했다가 그리스도의 수난 전에 주님을 떠나버렸다는 괴기한 설을 퍼뜨리는 이단이 있었다. 요한은 세차게 이를 반박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육체를 취하사, 사람으로서 세상에 나타나신 것을 강조하고, 이러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함을 말했다.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에서, 또는 ‘그 이름을 힘 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에서 기록한 것이라면(요 20:31), 요한서신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에서 기록한 것이다(요일 5:13). 그러므로 ‘빛’, ‘생

명', '진리', '말씀' 등 복음서에 쓰여 있는 용어가 본서에도 여러 번 쓰여 있다.

요한일서는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과 함께 사도요한의 저작으로, 복음서는 신앙을, 계시록은 소망을, 그리고 이 서신은 사랑을 말한다. 사랑의 사도 요한이 엄한 말로 이단을 반박함과 동시에, 간절하게 사랑을 말한 귀중한 편지이다. '빛', '사랑', '생명' 은 본서를 여는 열쇠의 말씀으로, 이 세 가지로 본서의 사상을 요약할 수가 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요 1:1). 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 인데, 그 ‘영원한 생명’ 이 육체를 입으시고 ‘나타나심으로써’, - ‘눈으로 볼 수도’, ‘손으로 만질 수도’, 그 음성을 들을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심으로써, -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이신 것이다(1-).

그리스도는 영원으로부터의 존재이시다.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이시다.’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요 17:3)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바 된 자” 이신 것이다(2-).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의 목적은 요컨대 우리들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참여케 하고, 또 서로 사귀을 가지게 하려 하심에서이다(3-; 요 17:21,23, 이 사귀은 구역에는 ‘교제’, 원역에는 ‘동심’ 으로 표현되어 있고, 영적교통을 의미한다). 이러한 하나님과 사람과의 영적교통의 경계에 들어간 자는 기쁨으로 충만케 된다(4-).

하나님과 교제를 가짐에는, 하나님의 빛을 받고, 말씀의 진리에 따라 사는 생애를 하며(6~7), 또한 죄를 고백하여 버리는 것(8-10)에 의해 성결함을 입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스도의 피에는 정결케 하시는 힘이 있고(7-)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므로 우리들 편에서 이러한 조건을 갖추기만 한다면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 주신다(9-).

그리스도교의 본래의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연합 곧 화목에 있다.

다시 말하면 성결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귄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서로 간의 교제에 들어가는 것이며, 따라서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고 하셨습니다(요 15:11-), 바울도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 여 주시기를 기도했으며(롬 15:13-), 요한 역시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4-)고 말했다.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극치이다.

요약하면, 하나님은 생명이시고(2-), 빛이시며(5-), 또 사랑이신 것이다(4:8-).

[내용개요]

생명과 빛 되신 하나님(요일 1장)

요한은 통상적인 인사와 수신자에 대한 언급을 생략한다. 대신에 저자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직접 듣고 보고 알고 있음을 주장하고, 이 메시지의 기본적인 내용이 성도간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교제에 관한 것임을 암시해 준다(1~4절). 하나님은 빛이시므로 성도들은 그에 어울리게 순결하고 정직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눌 수 없다. 이 순결한 삶은 성도들의 항구적인 대언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항상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미쁘고 의로우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한다(5~10절).

요한은 영원한 생명이요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 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도들의 체험적인 신앙을 근거로 하여 증거 되었는데, 이는 죄인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는 곧 인간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I. 서론, 1:1~4

1.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와의 개인적 친분을 선언함, 1:1~3상단
2. 편지를 쓰는 목적, 1:3하단,4
 - (1)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사귀를 격려하기 위하여, 1:3하단
 - (2) 기쁨이 충만케 하기 위하여, 1:4

1. 생명의 말씀

1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 요한은 그의 복음서를 “태초에” (in the beginning)라는 말로 시작하는 반면에 그의 첫 번째 서신은 “태초부터” (from the beginning)로 시작한다. 그 차이는 의미심장하다. 복음서는 태초와 그 이전을 고찰하며, 서신은 태초와 그 이후를 살핀다.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 이 말은 생명에 관한 말씀, 또는 생명을 주는 말씀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두 해석 모두 구주에 대한 적합한 묘사이다. 또한 말씀과의 개인적인 경험(1~3절)에 근거한 진리를 언명하기도 한다. “말씀” (로고스)을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것으로 사용한 것은 제4복음서(요 1:1,14)와 이 서신(1:1; 5:7), 그리고 요한계시록(계 19:13)에서만 독특하며, 이것으로 저자가 동일하다는 견해를 뒷받침한다.

우리가 들은 바요 : 요한과 그의 동료들이 실제로 들었던 분에 관하여 설명하고자 함을 천명하면서, 그는 성육신의 실재성을 부인하는 자들의 주

장에 이의를 제기한다. 오래 전 팔레스타인에서 그가 그토록 열성적으로 들었던 사랑스러운 음성을 생각할 때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소중한 추억이 떠올랐을 것인가! 완료시제 “들은” (have heard)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음을 암시한다.

눈으로 본 바요 : 요한은 “말씀” 을 실제로 보았다는 데 대한 의심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자 “눈으로” 라는 명확한 단어를 더한다.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헬: 프셀라파오, pselaphao) : ‘손으로 더듬다’ , ‘더듬어 찾다’ , ‘자세히 조사하다’

동일한 동사가 눅 24:39에 나오는데, 그곳에서 예수는 도마에게 자신을 만지도록 권하였다. 저자와 그의 무리가 육신이 된 말씀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음을 진술하고,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를 부인하는 다양한 이설들을 반박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 혈루증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을 만진 바 그러한 간절한 믿음의 접촉을 통하여 구원함을 얻은 것처럼, 신자들도 모세처럼 주의 품성의 영광을 매일 눈으로 보고, 어린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기 위하여 그분의 음성을 매일 듣고, 만져본 구원을 경험함으로써 복음의 능력을 확증해야 한다.

2 이 생명이 나타내신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바 된 자 니라

나타내신바 된지라(헬: 파네로오, phaneroo) : ‘알리다’ , ‘보이게 하다’ , ‘명백하게 하다’

요한은 ‘파네로오’ 를 자주 사용한다(복음서에서 9회, 서신에서 6회). 이 생명의 나타남은 요 1:14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와 조화되며, 그 영광을

목도한 지상거민들이 본 성육신을 지칭한다. 요한이 자주 사용하는 몇몇 단어들(아르케)이 1~3절에 나온다. '아르케' (arche) "태초"는 그의 저작에 23회 나오고 '조에' (zoe) "생명"은 64회, '마르튀레오' (martureo) "증거하다"는 47회 나온다. 요 1:1이 제4복음서의 머리말을 암시한다면, 요한은 언제나 계시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말한다. 철학자들과 유대 교사들은 한결같이 신적인 말씀에 대해 말했지만, 그들 중 누구도 그 말씀이 인간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요한은 예수의 증거를 만지고 느꼈다고 말함으로써, 예수님이 온전히 인간이 되셨음을 나타낸다. 예수님은 단지 헬라인들이 믿었던 신들의 '현현'과 같은 신적환상이 아니었다.

이 영원한 생명 : "생명"이 "영원한"과 결합된 형태가 요한의 글에 23회 나온다. 그는 영원에 관하여 생각하며, 그의 사모하는 주님과 함께 누릴 것으로 고대하는 생명의 영원한 본질을 강조한다.

우리가 보았고 증거 하여 : 사도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보고 들었을 뿐만 아니라 "생명" (요 1:4)으로서의 그 의미도 깨달았다. 그리하여 요한은 자신이 친히 본 그리스도를 "증거 하도록" 이끌렸다(행 1:8).

우리에게 나타내신바 : 저자는 영원부터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분을 보도록 그에게 부여된 특권을 깨닫고 두려움에 휩싸인다. 계시의 광채는 요한의 마음에서 결코 희미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그의 영적 시야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요 1:14,18)

[경험적으로 구주를 안 요한]

"주님께 대한 깊고도 열렬한 요한의 애정은 그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원인이 아니요 결과이었다. 요한은 예수와 같이 되기를 갈망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변화시키는 감화 아래서 그는 온유하고 겸손하

게 되었다. 자아는 예수 안에 감춰어졌다. 동료들 중 어느 누구보다도 요한은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에 자신을 복종시켰다. 요한은 이렇게 말한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요일 1:2),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요 1:16). **요한은 경험적으로 구주를 알았다. 주님의 교훈들은 그의 영혼에 새겨졌다. 그가 구주의 은혜를 증거 할 때에 그의 단순한 언어는 그의 전신에 스며든 사랑의 웅변이었다.**” (사도행적, 544)

※ 생명의 말씀

(1)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사도 요한은 본서의 초두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말씀으로 영원부터 계셨음을 강하게 증거 한다. 여기서의 말씀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부터 함께 계셨던 분으로 영원한 존재이시다. 그리스도는 세상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셔서 세상의 창조에 모두 관여하시어 그리스도 없이 창조된 피조물은 하나도 없는 것이다(요 1:3). 또한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구속계획에 따라 창조주이시면서 구속주가 되셨다.

- a. 태초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사 41:4)
- b. 창조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요 1:2~3)

(2) 세상에 나타나신바 된 말씀

영원한 존재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기 비하요, 인간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간들에게 보다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계시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영광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 모든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서의 역할을 중보적 차원에서 감당하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나타나신바 되어 사람들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다.

- a. 주께서 성육신하심(요 1:14)
- b. 말세에 나타내 보이셨음(벧전 1:20)

(3) 듣고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된 말씀

사도 요한은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주목하였다고 말한다. 또한 요한은 그리스도를 손으로 만져 보았다고 증거하고 있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육체적 부활을 증거 한 것이다. 초대교회에는 영지주의 이단들이 발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오심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도 있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손으로 직접 만져 보았음을 밝힘으로써 복음의 진정성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 a. 만진바 된 그리스도(마 29:9)
- b. 친히 만져 주신 그리스도(눅 4:40)

2. 복음 안에서의 교제

3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귀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귀어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① 이 서신을 쓰는 첫 번째 목적)

우리가 보고 들은바 : 이전에 들은 모든 것을 되풀이하고 강조하기 위한 수사학적인 반복(1~2절). 예수에 관한 저자의 개인적 지식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영지주의의 이단들을 이 서신이 반대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그 중요성에 결코 지나침이 없다.

사귄(헬: 코이노니아, koinonia) : 사도는 그가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지식을 통해 누리는 바로 그 영적인 축복들을 신자들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는바 다른 사람들도 이러한 교제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이 서신의 주된 목적들 중 하나이다. **“사귄”이라는 단어는 1장의 요지 중 하나로 중요하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이 복된 교제에 참여하기를 항상 바랄 것이다.

“사람이 그리스도께 오자마자 그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얼마나 소중한 친구를 발견했는지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게 하고자 하는 열망이 그의 마음속에 짝 튄다” (정로, 78).

우리의 사귄 : 곧 요한과 신성 사이에 존재하는 사귄. 그리스도인은 하늘과 땅 사이의 연결고리가 된다. 한 손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붙잡고, 다른 손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잡음으로써 아버지와 그의 방황하는 자녀들 사이에서 살아있는 연결 고리가 된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 요한은 말씀을 그리스도와 동일시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중 명칭은 요한이 아들의 생애의 인성적 측면, 그리고 신적인 측면(마 1:1; 빌 2:5; 요일 3:23)을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버지와 사귄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사람에게 나타낼 자격이 있는 아들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참으로 귀한 가치를 지닌 요한의 증언]

“여기에서 요한이 한 증언은 ‘나는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다’ 는 것이다. 초기 그리스도교의 역사에서 원수는 교회 안에 불화와 의심을 조장할 만한 의문을 제기하려고 시도한바 있었다. 이때에 요한의 증언은 신자들의 믿음을 확정짓는 데에 그 가치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귀중한 것이었다. 그는 확신을 가지고 이 같이 말할 수가 있었다. ‘나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셨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하신 말씀과 행하신 일들을 증언할 수가 있다’ ” (원고 29, 1911).

[은혜로 변화됨]

“사도 요한의 생애 가운데 **참된 성화**가 예증되어 있다. 그리스도와 가까이 교제한 세월 동안 요한은 자주 구주에게서 경고와 주의를 받았다. 그는 이 견책들을 받아들였다. 거룩하신 분의 품성이 그에게 나타났을 때에 요한은 자신의 부족을 알았으며, 그러한 계시로 인해 겸손하여졌다. 매일매일 그는 자신의 난폭한 정신과 대조가 되는 예수의 친절과 관용을 보았고 그분의 겸손과 인내의 교훈을 들었다. 날마다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께 이끌렸고 마침내 그는 주님에 대한 사랑 가운데서 자신을 잊어버렸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의 일상 생애에서 권능과 친절, 위엄과 온유, 능력과 인내를 보고 경탄해마지 않았다. 그는 자기의 분개하기 잘하고 야심 많은 성질을 그리스도의 고쳐 주시는 능력에 굴복시켰으며 거룩한 사랑은 그의 마음 속에서 품성의 변화를 이룩해 냈다... 요한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 것과 같은 품성의 변화는 항상 그리스도와 교제한 결과이다. 개인의 품성에 현저한 결점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에 거룩한 은혜의 능력은 그를 변화시키고 성화시킨다.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그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하여 마침내 그가 사모하던 그분과 같아진다” (행적, 557~558).

♣ 애국 소녀 잔다르크의 신앙

프랑스 애국 소녀 잔다르크(1412-31)는

"백년 전쟁으로 영국에게 짓밟힌 조국을 구하라"는 천사의 음성을 듣고

1429년 국왕 샤를르 7세를 만난다.

왕실 신학자들이 미리 만났는데 그 신앙에 너무 감동되어

국왕 면회가 가능해졌다.

임금은 "국왕도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일이 없는데 내가 들었다고

하느냐"고 호령했다. 13세의 잔다르크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을 아버지처럼 친하게 사귀는 사람에게만

음성을 들려주신다."

결국 임금도 감동되어 6천 명의 군대를 지휘시켜 오를레앙을

해방시킴으로써 프랑스를 구출했다는 역사담이 있다.

4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 이로라 (② 이 서신을 쓰는 두 번째 목적)

기쁨 : 그리스도와의 사귄에서 오는 당연한 결과(롬 14:17)

충만케 : 또는 '성취되게' . 예수는 "이것을" 제자들에게 같은 이유로(요 15:11) 말했었으며, 사랑받은 제자 요한 역시 자기 주님의 말씀을 잘 반복하고 있다. 기쁨의 성취는 요한의 글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이다(요 3:29; 15:11; 16:24; 17:13; 요이 12). 그리스도교 신앙은 행복한 것이다. 이 서신을 쓴 목적과 함께 간략한 서론을 이렇게 끝맺는다.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요한은 그가 이미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누리고 있는 동일한 사귄을 신자들에게도 누리게 하기 위해 그의 지식을 함께 나누기를

열망한다. 이 애정 어린 열망을 표현하는 동안 그는 아들의 신성과 영원성 또한 성육신-그 결과로서의 인성-을 역설한다. 그가 살던 시대나 우리 시대의 신자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교 신앙의 기초와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과 사역에 대한 지식은 가장 중요한 지식**이므로 요한은 이 놀라운 지식에 대하여 단순하지만 단호하게 증거 한다. 이것으로써 영지주의 이단의 가르침에 대해 효과적으로 반박한다.

※ 참된 사귀를 위한 복음 증거

사도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사귀를 위해서라고 말한다. 여기서의 ‘사귀’ 이란 말은 교제한다는 뜻으로 결합의 의미가 있다. 즉 복음을 증거 하는 목적은 복음을 듣는 자가 믿음을 가짐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어 영적교제를 나누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또한 사도는 이러한 사귀를 통하여 오는 필연적 결과인 기쁨이 충만케 되는 그리스도인 경험을 신자들과 함께 누리기를 열망한다.

- a. 그리스도와의 교제(고전 1:9)
- b. 유익한 성도 간의 교제(몬 1:6)
- c. 아들의 신분이 됨(갈 4:6)

II.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귀를 위한 요구사항들, 1:5~10

1. 빛 가운데 행하라. 1:5~7
2. 죄를 자백하라. 1:8~10

5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저에게서 듣고 : 곧 하나님에게서 혹은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요한이 신자들에게 전달하려는 “소식”은 그가 만들어 낸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로부터 직접이든 계시로든 주님께로부터 받았었던 것임을 강조한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 “빛”이란 단어 앞에 헬라어에서 관사가 빠진 것은 하나님의 본성의 한 단면 또는 한 특질로서의 “빛”을 묘사한다. 주께서 그분의 손으로 창조에 착수했을 때, 빛은 존재케 된 첫 번째 요소였다(창 1:3).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는 대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이 수반된다(출 19:16~18; 신 33:2; 사 33:14; 합 3:3~5; 히 12:29 등). 하나님은 “영영한 빛”(사 60:19,20)이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딤후 6:16)에 거하시는 분으로 묘사된다. 이러한 물리적 현상은 하나님의 품성을 특징짓는 도덕적 순결과 완전한 거룩함을 상징한다. 빛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 중 하나가 어두움을 몰아내는 힘이다. 가장 높은 수준, 곧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은 이 특성을 최상급-죄의 어두움은 그분의 면전에서 존재할 수 없다(합 1:13)-으로 드러내신다.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 문자적으로 ‘그 안에는 어두움이 없으며, 하나도 없다’라는 이중부정형. “하나님은 빛이시라”와 같은 단정적인 진술을 한 다음 그 반대 개념을 부정함으로 그것을 더 강화하는 것이 요한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요한의 단호한 선언에는 이유가 있다. 영지주의 이론은, 선과 악은 서로 필요한 상대역이었으며 그 둘 다 동일한 신적 근원, 즉 하나님에게서 생겨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만일 하나님이 어두움이 조금도 섞이지 않고 완전히 그리고 전적으로 “빛”이시라면, 영지주의는 하나님의 본성에 반대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므로 신자들은 이를 반드시 거절해야만 하였다. 바울서신에서 “죄”가 “의”의 대조이고(롬 6:18,19) “육신”이 “영”의 대조이듯이(롬 8:1), 요한 서신에서 “어두움”은 “빛”의 대조이다. 어두움이란, 육체적, 지적, 영적인 어두움이 있으며 여

기에는 죄악 가운데 행하는 영적인 어두움을 의미한다.

6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사귀어 있다 : “사귀어” (헬:코이노니아, koinonia)은 ‘같이 함’ , ‘나눔’ 의 뜻. 여기서 이 말은 성도들이 서로 연합함을 뜻하는 것이며, 요 17:21의 말씀처럼 성부와 성자의 일치를 기초로 하는 ‘하나가 됨’ , ‘한 몸이 됨’ 을 의미한다. 하나님과 사귀어 있다는 주장은 그 실제적인 결과로 입증되어야만 한다. 생각과 행동, 기도와 행함과 같은 생애의 양면이 있을 것이다(치료 봉사, 512). 하나님의 임재를 실천하는 것은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그분이 가까이 계심을 항상 의식하는 것이다. 모든 생각과 모든 말, 모든 행동이 그분의 신실한 임재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그분의 눈을 의식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다. 우리는 그분이 항상 우리를 사랑해 오셨음을 알고 있으며 그분의 돌보심에 감사하게 된다(시 139:1~12; 렘 31:3). 마치 어린아이가 위험이 닥쳐올 때 그의 손을 아버지의 손 안에 확신을 가지고 집어넣고 위험이 지나간 후에도 계속 잡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도 이와 같이 하늘 아버지와 동행하게 된다. 이러한 것이 참된 ‘그분과의 사귀어’ 이다.

어두운 ... 행하면 : 구약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 하는 것을 그 계명 안에 ‘행하는’ 것으로 자주 묘사했다. 너무 자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유대교사들은 유대인이 행동해야 하는 방식에 대한 그들의 견해를 ‘할라카’ (halakah), 곧 ‘행함’ (working)이라고 불렀다. 어두움에 익숙해진 눈은 빛에 반응하는 능력을 상실한다. 이와 같이 영혼에 있어서도, 죄악의 어두움은 영적 성장을 저하시키며, 지속적인 죄는 영적인 시각을 파괴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더 효과적으로 죄를 짓기 위해

어두움을 추구한다(요 3:19,20).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 : 요한은 빛의 길을 따른다고 공언하면서 자의로 어두움에 다니는 자들의 위선을 강조한다. “거짓말을 하고” 라는 긍정적인 진술 다음에 그것의 부정적인 짝으로 “진리를 행치 아니함” 을 잇는 요한의 습관에 대한 또 다른 예. ‘진리를 행함’ 이라는 사상은 신약에서 요한에게서만 독특하게 표현된다(요 3:21; 8:32). 죄는 처음에는 마음속의 생각으로 표현되어지고, 그 생각은 비로소 행동으로 표출되어진다. 매일의 삶의 활동 가운데 신앙을 고백하기를 부인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사귄이 유지되지 못하고 분리되어진다. 진리가, 신앙이, 매일의 생애 속에 적용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마침내 어두움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7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귄
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서로 사귄 :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빛이 비쳐 나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며, 또한 주님을 따르고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도 교제하는 것이다.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동일한 진리를 신봉하고, 생애에서 동일한 가르침을 따를 때, 우리는 연합하지 않을 수 없다. 빛이 비추고 있는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와 형제들 사이에 있는 좋지 못한 가장 사소한 태도일지라도 언제나 우리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그 아들 예수의 피 : 예수에 대한 신원의 정체성은 정결케 하는 피를 제공하는 희생의 가치-곧 그 피는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왔다는 것-를 강조한다.

깨끗하게(헬: 카사리조, katharizo) : ‘깨끗하게 만들다’ , ‘씻다’ . 복음서에서는 문둥병자를 “깨끗케” 하는 것으로(마 8:2; 눅 4:27), 다른 곳에서는 죄나 죄책에서 깨끗케 하는 것(고후 7:1; 엡 5:26; 히 9:14)으로 사용되었다. 요한이 여기서 언급하는 깨끗케 함은 그리스도인 행보의 시초에 처음 회개하고 신앙고백을 할 때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깨끗케 함은 생애 전체에 계속 필요되며 성화과정의 일부이다**(롬 6:19; 살전 4:3). 그리스도 외에 누구도 죄 없는 생애를 살지 못했다(요 8:46; 벰전 2:22). 따라서 사람은 죄에서 깨끗해지기 위해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다(요일 2:1,2).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은 그분의 빛의 영광 가운데서 그들 자신의 죄됨을 가장 잘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피의 효험]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분이 살아 계셔서 그 피를 가지고 탄원하시고, 그를 받아들인 모든 영혼을 위하여 중보하심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케 한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수의 피의 공효를 항상 우리 앞에 간직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산 믿음으로 생활을 정화시키고 생명을 지탱하게 해 주시는 그 피를 개인에게 적용시킬 때에 그것은 우리의 소망이 된다.** 우리들은 측량할 길 없는 그 피의 가치를 감사하는 가운데 **자라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과 계속 화목한 가운데서 믿음으로 그 피의 공로를 주장할 때에 한해서만 우리를 위해 말하기 때문이다” (편지 87, 1894).

[은혜로 말미암는 새로운 피조물]

요한의 생애와 품성 가운데 나타난 믿음직한 사랑과 희생적인 헌신은 그리스도교회에 말할 수 없는 귀한 교훈을 주고 있다. 어떤 이들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관계없이 이러한 사랑을 소유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하지만, **요한은 본성적으로 해로운 품성의 결점들을 가지고 있었다. 곧 그는 자만스럽고 야심적이었으며 화를 잘 내고 남을 멸시하기를 잘하고 남에게 곧잘 해를 끼쳤다.**

주님을 위한 깊고도 열렬한 요한의 애정은 그리스도께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랑의 결과로 일어났다. **요한은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갈망하였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변화시키는 감화 아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었다. 자아는 예수님 안에 감추어졌다. 그는 살아 계신 포도나무와 밀접히 연결되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되면 언제나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것이 참된 성화다.**

개개인의 품성 가운데는 뚜렷한 결점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가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화시키고 성결하게 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생애에 관련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신앙으로 보다 더욱 성장한 남녀 곧 성품과 기질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산 대리자로 변화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자들이다(성화된 생애55).

※ 빛이신 하나님과의 교제

사도 요한은 복음을 증거 하는 목적이 복음을 듣는 자로 하여금 복음을 믿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를 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말한다. 복음의 목적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고 교제케 하는 것이며 이것이 곧 구원인 것이다. 빛 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곧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없듯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부정한 인간이 함께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죄 씻음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좇아 빛 가운데로 행하여야 한다. 성결을 전제로 하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구원받은 자의 징표인 것이다.

- a. 빛 가운데 행하는 성도(엡 5:8)
- b. 주 안에서 하나 됨(고전 10:16,17)

♣ 논쟁과 순종의 차이

어느 날 성경의 권위자들이 모여 기도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모였던 신학자들은 모두 말하기를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야.”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그 모임의 차 시중을 들고 있던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항상 기도하는 것이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때 둘러 앉아 있던 신학박사들이 그녀의 말을 듣고 흥미 있게 생각되어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나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께 나의 마음의 눈까지 뜨게 해

주십사하고 기도하며 일어납니다.

또 옷을 입을 때에는 나의 영혼에 믿음의 옷을 입혀 달라고 기도하며

옷을 입습니다.

또 세수 할 때에는 나의 마음도 언제나 깨끗하게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십사 하고 기도합니다.

또 청소를 할 때에도 내 마음 구석구석이 깨끗이 청소되어 죄가

잠깐이라도 내 속에 있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안전의 비결]

“그대가 홀로 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일상생활로 분주할 때에라도 우리 구주와 이야기하는 습관을 기르라. 마음을 끊임없이 하늘로 향하여 도움과 힘과 빛과 능력을 얻기 위하여 조용한 탄원을 올려라. 호흡마다 기도가 되게 하라. ... 마음속에 계시는 그리스도, 생활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 그것이 안전의 비결이다.” (기도197)

♣ 조지 뮐러의 일기

5월 7일 내가 매일 해야 할 일 중 으뜸가는 일은 주님과 교제하는 일이다. 나의 주된 관심사는 내가 얼마나 많이 주님께 봉사할 수 있는가가 아니고,

나의 내적 자아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영적인 영양 공급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복돋아줄 수 있고,

실의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해줄 수도 있고,

또한 나 자신의 다른 면으로 주님의 자녀로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주 안에서 기뻐하지 않고

나날이 나의 내적 자아가 영적인 영양 공급과 힘을 얻지 못한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을 그릇된 정신으로 이끌어 갈 수가 있는 것이다.

내가 해야 했던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었다.

그것을 통해서 나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때로는 경고와 채찍질도 받게 되는 것이다.

대개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제일 먼저 기도를 시작한다.

그러나 정신집중이 안 될 때는 흔히 15분에서 1시간 정도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곤 했었다.
나에게는 더 이상 이런 문제는 없다.
나는 가끔씩 신앙생활의 초창기에 성경말씀을 읽고
목상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던 것에 대해 놀라곤 했다.
외적인 자아가 먹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듯이
내적 자아 또한 그렇다.
물이 수도관을 통과하듯이 우리 마음속을 통과만 하는 것처럼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에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읽는 성경구절을 목상하고 또한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 넣어야 하는 것이다.

3. 회개함으로 얻는 구원

(1) 죄 없다 하여 스스로 속이는 자

8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요한일서가 기록될 당시 사회적 흐름을 살펴보자면, 영지주의자들이 절
대적인 지식(영지)을 얻으면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설교하던
때였다. 특히 그들은 자신들이 세상을 초월한 영적인 존재임을 자랑하였
다.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들의 의를 자랑하는 죄 없음에 대한 이러한 주
장은 자아 칭송, 옛사람의 부활, 자만 곧 죄의 행위이며,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자들만이 일삼는 자아 모순적인 자기주장이다. 한 예로 아나니아
와 삽비라의 경우가 그러하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면서도 사도들

을 속이고 또 회개를 촉구하는 사도들 앞에서 오히려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다 죽임을 당했다(행 5:1~12). 거짓 성도와 참 성도의 차이는 누가 범죄 하느냐가 아니라 범죄 한 뒤 누가 회개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임을 기억해야 한다.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함]

“사도들과 선지자들 중 어느 누구도 죄가 없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생애한 사람들, 고의로 악행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생명 그 자체를 희생하고자 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거룩한 빛과 능력으로 영화롭게 하신 사람들도 그들의 본성에 죄악이 충만함을 고백하였다. 그들은 육신을 신뢰하거나 자신들의 의를 주장하지도 않았으며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였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모두 그와 같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께 더욱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분의 품성의 순결을 더욱 분명히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 더 죄의 극악함을 알게 되고 자신들을 높일 마음이 더욱 더 적어질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영혼의 발돋움, 계속적이며 열렬한 죄에 대한 마음을 찢는 회개와 그분 앞에 마음을 겸비하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적 경험에 있어서 진보의 매 발걸음마다 우리의 회개는 깊어질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충분함이 있다는 것을 알 것이며 다음과 같은 사도의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할 것이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롬 7:18; 갈 6:14)” (행적, 561, 562).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요한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라고 명백히 말한다.”

“요한의 생애는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기 위해서 가장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생애 중의 하나였다. 그 사도는 그의 구주를 너무도 친밀히 따르며 그리스도의 순결함과 고귀한 거룩함을 깊이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품성은 대조적으로 불결하게만 보였다. 구주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느낌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들이 더욱 더 자세히 예수님의 생애와 품성에 대해 명상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욱 더 자신의 죄를 느끼게 될 것이며, 조금도 그들의 마음이 거룩하다고 주장하거나 그들이 성화되었다고 자랑하지 않을 것이다” (성화된 생애79).

(2) 자백함으로 구원 얻는 자

9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자백하면 : 고백은 단순히 죄됨을 인정하는 것보다는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 범죄의 정확한 본성을 인식하고 범행으로 이끄는 요인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은, 죄에 대하여 고백하는 것과 그것이 재발할 때 유사한 유혹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주는 데 필수적이다.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은 참된 회개가 없으며 용서받기 위한 모든 것을 진정으로 갈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하나님께서 가납하시는 고백]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 28:13).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조건은 단순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이다. 주님께서는,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하여 어떤 괴로운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께 우리의 심령을 고치거나 우리의 허물을 속하기 위하여 길고 지루한 순례를 하거나 고통스런 고행을 할 필요가 없다. 다만 죄를 고백하고 버리는 자는 자비를 얻을 것이다. 이것은 타락한 사람이 용기를 얻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분의 나라에서의 영생을 구하게 하고자 주어진 귀중한 약속이다. ... 자신의 허물을 인정함으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낮추지 못한 자들은 가납 받을 첫째 조건도 아직 이루지 못하였다. 만일 우리가 회개할 것이 없는 회개를 경험하지 않고 진정한 영혼의 견비와 심령의 통회로써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악을 미워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결코 죄의 용서를 진정으로 구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혀 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결코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우리가 과거의 죄를 도말 받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즐겨 낮추지 않고 진리의 말씀의 조건에 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5중언, 636~637).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 여기에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이 전제된다. 첫째로 **미쁘심**은 주의 두드러진 특성 중 하나이다(고전 1:9; 10:13; 살전 5:24; 딤후 2:13; 히 10:23). 이곳에서 요한은 용서에 대해 하나님이 충실하심을 강조한다(출 34:6,7; 미 7:19). 하나님의 미쁘심을 의심하는 자들이 얼마나 자주 평안을 잃어버리는가! 사단은 주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간절한 관심을 기울이신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기 위해 전력을 다한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돌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의심하도록 이끌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 중 많은 혹은 대다수를 돌보신다고 믿어도 만족해한다. 우리는 우리를 타락에서 지킬 하나님의 능력(유 24)을 끊임없이 상기해야 하며, 우리가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한 결과로 타락하게 된 때에라도 회개하고 자비와 용

서를 구하기 위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한다(히 4:16; 요일 2:1).

둘째로 **의로우신**(헬: 디카이오스, dikaios)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관이며, 그의 공의는 우리의 “모든 불의” (헬: 아디키아, adikia)와 대조되어 명백히 나타난다.

우리 죄를 사하시며(헬: 아피에미, apiemmi)(칭의) : ‘멀리 보내다’ , ‘내쫓다’ , ‘버리다’ , ‘용서하다’ . 고백된 죄는 하나님의 어린양이 지신다(요 1:29 “세상 죄를 지고 가는” : takes away the sin → 제거하다). 자비로운 하나님의 사랑은 회개하는 죄인을 용납하고, 고백된 죄는 그에게서 제거되며, 죄인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생애로 덮여 주님 앞에 선다(골 3:3,9,10; 실물교훈, 311~312). 죄는 사라지고, 죄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공의는 용서의 국면에서 완전하게 드러난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성화) : 여기에 **구원의 두 단계**가 설명되어 있다. 죄인이 죄에서 돌아서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첫 단계가 **“우리 죄를 사하시며”** 곧 **‘칭의’ 라면(롬 5:1)**, 이 죄로부터 매일매일 깨끗함을 입고 은혜 안에서 자라나는 것을 일컬어 **‘성화’ 라 한다(롬 6:19)**. 죄인이 용서 받을 때 그는 용서받은 그 죄로부터 깨끗케 된다. 그의 엄청난 죄를 고백할 때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 해 달라고(시 51:10) 기도했다. 주는 회개한 죄인을 모든 불의에서 깨끗케 하고자 한다. 그분은 그의 자녀의 도덕적인 완전을 요구하며(마 5:48), 모든 죄를 성공적으로 대항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마련하였다(롬 8:1~4). 옛 생각과 행동의 습관이 다시 생애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무릇 깨어서 마음을 지켜야 한다(롬 6:11~13; 고전 9:27). 기만적인 마음은 종종 옛사람으로 돌아가려는 열망을 가지고 지속적인 방종을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들을 모색한다. 이러한 위험을 부단히 지각하고

날마다 목적을 새롭게 하는 일이 죄 없음에는 필수적인데(정로의 계단, 52), 이는 사람이 생애의 모든 죄된 욕망과 경향을 근절시키기 위해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들이기까지는 하늘이 그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요일 3:6~19; 유 24).

(3) 말씀이 없는 자들의 거짓말

10 만일 우리가 범죄 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범죄 하지 아니하였다 : 구약 선지자들은 자신이 무죄하다고 거짓 항변하는 것을 자기기만이라고 정죄했다(렘 2:35; 호 8:2; 잠 30:12).

이것은 거룩함에 대한 세 번째이자 가장 명확한 거짓주장이다(6,8절).

첫째로, 6절의 하나님과 사귀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는 거짓주장은 우리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둘째로, 8절의 죄 없다는 주장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음을 의미하지만,

셋째로, 10절의 범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

그의 말씀 : 영감의 말씀은 사람에게 그의 진정한 상태를 드러내고 그로 하여금 자신을 죄 없다고 생각하는데 현혹당하지 않도록 구해주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수단이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연구하는 근면한 학생이 되어야 한다. 성경의 진리를 철저히 기억해야 하며, 마음은 이처럼 생명을 주는 말씀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성경의 귀중한 약속들은 시련과 역경의 때마다 도움을 줄 것이며, 의에 대한 그 교훈은 우리를 구주에게로 이끌고 그분의 거룩한 품성을 받도록 우리를 준비시킬 것이다(딤후 3:16,17). 이처럼 우리 마음속에 심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

는 더 이상 고의로 그분을 거슬러 범죄 하지 않을 것(시 119:11)이다. 그러나 성화를 완성했다는 주장은 언제라도 결코 있지 않을 것이다.

[죄 없다고 자랑하는 기만]

“거룩하다고 크게 공언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거울을 들여다보라. 그들이 율법의 원대한 요구를 깨닫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감찰하는 율법의 일을 깨달을 때 죄 없다고 자랑하지 않을 것이다. 요한은 자신을 그의 형제들로부터 분리시키지 않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일 1:8,10)” (행적, 562).

[예수의 노종 요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나이 많은 사역자들을 쓰실 수 있는 방법의 실례이다. 그가 노인이었을 때에 기록한 감동적인 말을 읽어보라. 그 누가 그보다 더 확고하고, 더욱 결정적인 증언을 할 수 있겠는가?(1:1~10:2:1~5 인용)

요한은 나이가 많았어도 그의 생애로 그리스도의 생애를 드러내었다. 그는 거의 백 살 가까이 살았다.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구주의 이야기를 되풀이 하였다. 신자들에게 핍박이 밀어닥쳤다. 경험이 미숙한 사람들은 흔히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들의 손을 놓칠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나이 많고 시련을 많이 겪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그의 믿음을 굳굳히 지켰다” (원고 92, 1903).

[저작 목적]

저자는 매우 분명한 어조로 자신의 저작 목적을 설명한다. 그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귄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귄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3절)고 말하였다. 한편 요일 5:13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저작 목적을 말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본 서신의 저작 목적은 이미 믿고 있는 자들에게 참된 지식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알려주어야 할 지식의 내용은 그리스도인 교제와 영생에 관한 것이었다.

저자는 당시의 이단인 영지주의의 사상체계로부터 기독교의 참된 지식을 수호하기 원했다. 따라서 참된 지식인 교제와 영생의 문제를 심각한 주제로 다룬 것이다. 그러므로 저작 목적은 당시의 거짓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고 그리스도교의 기본 진리를 고수하려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더욱 근본적인 목적은 이미 믿은 자들에게 참된 지식을 가르치려는 교육적인 목적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특징들, 곧 사랑을 행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촉구 받아야 하였다. 신약의 그 어떤 책에서도 신앙과 사랑을 이렇게 분명하게 결합시켜서 제시한 경우는 없었다. 당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또한 사도는 신자들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권면했는데, 이 점도 역시 오늘날의 세태를 여실히 반영하며 신자들에게 심각하게 강조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